

장흥군의회 군의원,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

과거 여성보다 남성 사무관, 남성 지도자가 훨씬 더 일을 잘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성비하 발언'을 했던 장흥군의회 B모 군의원이 최근 열린 제247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관련, 취재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장흥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자 B 군의원에게 전화를 한 A 신문사 C 기자가 "장흥군의회 의원들 군정질문이 겁친다"며 B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핵심이 될만한 현안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 의원은 "기자가 알아서 기사를 써야지 나에게 물어보느냐. 난 언론플레이를 싫어한다. 다른 의원님들 기사나 잘 써 주라."는 답변을 돌아야 했다.

를 싫어하고, 촌지 줄 형편이 안되고, 선거 5년 출마해서 5번이나 떨어져서 있는 재산을 다 까먹었다"는 등 해당 기자에게 닳두리를 늘어났다.

C 기자가 B의원에게 "중복된 기사내용이 많으면 기사를 내기 힘들다"며 부탁을 했음에도, B 의원은 해당 기자에게 "알아서 쓰라"며 전화를 끊었다.

해당 기자가 "의원님에게 촌지나 받고 전화 드린 것도 아니고, 기사분량 때문에 전화했는데 솔직히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하자, B 의원은 "오해가 됐으면 사과하겠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황당한 A 신문사 기자는 B의원에게 다시 전화해 "의원님, 저에게 서운하신 게 있나?"고 묻자 "본인은 언론플레이

A 신문 기자는 장흥군과 강진군의 지역 내 중요한 현안들과 홍보 및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B 의원 말대로라면 A 신문사

기자는 촌지를 주면 보도하고, 촌지를 주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기자로 생각한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B 의원의 발언에 C 기자는 대한기자협회 장흥지회에 문제를 제기해 대한기자협회 장흥지회 사무국장이 B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요청 했으나 거절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오전 10시40분경 군의회 정례회가 장흥군청 집행부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수 십분만에 마치는 파행에 이르렀다. 장흥군의회가 지난 29년 동안 행정 감시와 지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한 지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건이다.

A 신문사 C 기자는 장흥군의회 의정실에서 군의회 파행사건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다. B 의원이 의정실에 들어오면서 "C 기자는 대한기자협회에 나를 고소하였나?"며 고성을 질렀다. C 기자가 B 의원에게 "저는 당연히 대한기자협회에 고소가 아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B 의원님께서 한 촌지 발언을 묵과할 수 없어서, 협회에 정식 문

제제기를 하였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B 의원과 C 기자간 고성으로 오고 갔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이 이 상황을 보고 화해를 시키려고 부의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C 기자가 B 의원에게 "솔직히 저에게 감정있나?"고 묻자 B 의원은 "A 신문사와 D 방송은 언론으로 생각 안한다. 이유는 2018년 7월 12일 '여성비하 발언' 보도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닌데 보도해서 기자로 보지 않는다."는 대답을 했다.

하지만, 당시 타 방송국에서도 B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보도가 된 바도 있고, 장흥군의회에서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던 B 의원이다.

B 의원은 "C 기자가 보도한 기사가 가짜로 만들어져,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보도도 안할 거 뭐하러 찍느냐, 다 큐멘터리 찍느냐?"며 "장흥군의회사무과 팀장에게 C 기자가 광고를 안줘서 팀장을 괴롭혔다"는 말까지 내뱉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 기자는 팀장과 의회사무과에 자신에게 광고준 게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A 신문에 광고를 준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들을 수 있었다. B 군의원은 기자가 팀장을 겁박했다는 어불성설로 기자를 모함하고 부의장실에서 C 기자를 배로 밀치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 의원이 취재기자에게 한 발언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군의원은 장흥군 행정을 감시하고,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임기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책임감이 있는 공인신분이다. 공인신분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이 있다. 깊이 생각한 후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보도가 됐다고 악감정을 가지고 나쁜 신문사, 나쁜 방송이라 발언했다는 사실은, 기자에게 문제가 있는 보도는 하지 말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metroseoul.co.kr

광주 '영구임대주택' 슬럼화 막는다

시설 개선·거주자 삶의 질 향상 등 3개 분야 16개 중장기 방안 마련



광주 상촌영구임대아파트. /뉴스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등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이 비좁고 노후화돼 공실이 늘어나고 슬럼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광주만의 혁신적인 '영구임대주택 공실해소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맞춤형 시설개선 분야에서는 비좁은 두 세대의 벽을 허물어 주거공간을 넓히는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5370호(도시공사 4700호, LH공사 1만670호)이며, 이 가운데 1만3920호(90.6%)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공용부분인 무장애 시설 개선과 노후시설 기능 향상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민원이 많은 하남시영아파트 베란다 문턱 제거 등은 시비를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24~26㎡의 초소형 위주로 공급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생활이 불편해 입주 기피하면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시설개선',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법제도 개선' 등

주거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주거복지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여수박람회장에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8000㎡ 전시시설·3000명 수용 건립비 1149억... 비용편익 1.02 MICE 수요 늘어 최적지로 꼽혀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전라남도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8000㎡의 전시시설과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총 소요 사업비는 1149억 원이다.

는 센터 구축을 위해 박람회장 B부지로 제안했다.

전라남도는 마이스 및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 특성산업의 국제화 및 진흥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본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운영 조직은 단독 법인 설립에 의한 간접운영 방식 형태로, 2본부 5팀 26명 규모의 운영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컨벤션 전시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 등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적정 건립 규모는 국제회의시설 규모로 전시장 8000㎡, 3000명이 수용 가능한 회의장 5000㎡다.

재무성 분석 결과 센터 가동률 35%를 시작으로 매년 5%씩 늘려 운영 7년 차부터 65%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4년째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립 비용은 부지 매입비 포함 1149억 원이다. 이같은 건립안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 결과 1.02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의 대규모 MICE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에 대응한 대규모 MICE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립 부지는 산업 경쟁력을 위한 부지면적 확보와 전시관 확충 가능성, 워터프론트(WaterFront) 형태의 특색이

이런 가운데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호텔, 중·소형 컨벤션시설, 풍부한 관광 자원 등 MICE 연관 시설이 이미 구축

돼 있고, 해양, 석유화학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꼽혔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이번에 지역에 적합한 건립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김명원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관광객 60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마이스(MICE)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를 확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

오늘의 날씨

6월 10일 (월) 음력: 5월 8일

수도권 날씨 24~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5:10 | 해질 19:53

지역별 날씨: 연천 15/24, 동두천 15/25, 가평 14/22, 파주 15/24, 서울 16/24, 양평 16/24, 인천 17/23, 수원 16/24, 용인 16/24, 평택 16/24, 백령도 14/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담양군, 택시요금 4000원으로... 6년만에 인상

13일부터 기본요금 500원 올라 전남도 시·군 최저 인상률 적용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오는 6월 13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군에서는 일반택시 36대, 개인택시 54대 등 모두 9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담양군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었다.

이에 지난 4월 4일과 5월 31일 지역 법인택시회사 4개사 및 개인택시연합회 대표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2차례에 걸쳐 택시운임 요금·요금 협의회를 통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2km)은 종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은(15km/h 주행 시)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변경되어 전라남도 시·군 최저 인상률인 12.57%가 인상된다.

다만, 시계의 활증(사업구역 외 운행) 및 심야(오전 0~4시) 활증은 기존과 동일한 20%로 동결하고, 호출비 1000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